

WMS, TMS구축 3자 물류에 집중

글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

“물류 산업 분야에서 IT는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과거에는 물류업에서 경쟁력은 인프라였어요. 지금 인프라는 얼마든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카로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용만 더 들 뿐입니다. 이젠 물류에서의 경쟁력은 사람과 IT예요. 사람은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물류산업에서 IT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돼 버렸습니다.”

류주환 부장



종합물류기업인 KCTC 정보시스템부 류주환 부장은 IT 없이는 물류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1995년부터 관세청에서는 EDI를 통해서 모든 관세신고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물류기업들은 의무적으로 EDI 시스템을 구축했고, 타 산업보다 일찍이 정보화 물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자물류 사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WMS, TMS 구축

KCTC는 3자물류(3PL : Thirty Party Logistics) 사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WMS, TMS 등의 패키지를 도입하여, WMS는 2003년도, TMS는 2005년도에 오픈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으로는 8월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있고, 영업사원들을 무장시키고자 PDA를 이용한 SFA(Sales Force Automation)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기업맞춤서비스를 시행해온 KCTC는 중요 거래선에게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오더, 화물 추적 등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올해는 웹으로 좀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2002년에 운송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한 KCTC는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는 작업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여러 시스템들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통해 포털 시스템화해서 싱글 인터페이스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시스템부 류주환 부장은 기획실장을 겸직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도 정보시스템부장이 기획실장을 겸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과 정보시스템의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부분은 정보시스템이 회사의 비전 전략을 실현시키는 부서라는 점입니다. 운송부문이나 조직을 바꾸는 계획은 전산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였어요. 경영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정보시스템부가 주도했습니다.”

KCTC 정보시스템부의 업무는 크게 항만물류파트, 삼자물류파트, 인사/회계/내부그룹웨어 등 관리파트로 분장되어 있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정도로 인력구성상 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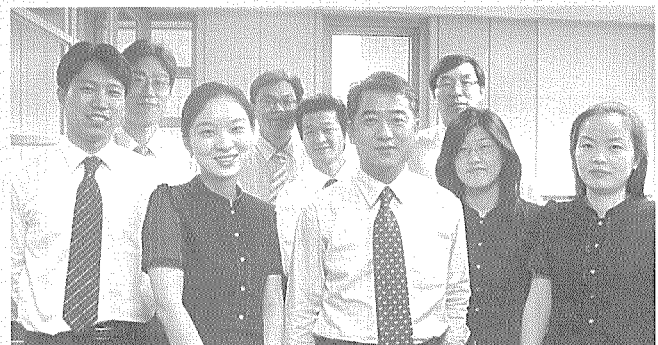
“부서의 막내가 입사 5년차입니다. 부서 전원이 업무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부 직원들이 현업을 교육시키고, 현업의 인수인계까지 맡아서 해줄 정도입니다. 부서 자체적으로는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있어서 외부에서 2개월 교육을 받은 후 컨설팅을 받지 않고 ISP를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직원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신기술을 활발하게 습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정보시스템부의 운영노과장과 이창환 대리는 업종별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부의 IT환경이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제때 습득할 필요성이 있어요. 업종별로 실무자들이 모이면 정보를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CTC는 올해 6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올해 1월부터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시행된 종합물류업 인증제에서 KCTC를 포함해 10개사가 선정되었다. 인증심사는 국내외 네트워크 등 서비스 범위 다양성, 매출액 등 기업규모, 기업의 안전성, 전문성, 3자물류 매출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류주환 부장은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은 만큼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연동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및 최적의 IT인프라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Users



KCTC 정보시스템부는 현업을 리드하는 조직이다.